



아르헨 격파 선봉 11인



<정성룡> <이영표> <조용형> <이정수> <오범석> <박지성> <기성용> <김정우> <이청용> <임기훈> <박주영>



오늘밤은

16강의 밤



킬러 박주영, 아르헨 울려주마

원톱 출격 골문 사냥... '차미네이터' 차두리 대신 오범석 낙점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 사냥에 해결사 박주영(AS모나코)이 나선다. 박주영은 그리스와 1차전 2-0 승리 때 열기훈(수원)과 루톱으로 나섰지만 이번에는 4-2-3-1 전형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아르헨티나의 골문을 열 특명을 받았다. 박주영은 "내가 쉽게 해결하면 팀도 더 쉽게 경기를 풀어가 수 있다.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도 내 임무"라며 각오를 다졌다.

박주영의 뒤를 받치는 공격형 미드필더는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몫이다. 박지성은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주로 나섰다지만 같은 4-2-3-1 전형을 쓰는 아르헨티나와 경기에선 보다 공격적인 임무를 맡았다. 박주영의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은 물론

차진 스트라이커로 직접 골문을 노린다. 특히 박지성은 그리스와 1차전에서 썩기골을 사냥하며 월드컵 개인통산 세 골을 넣은 한 골을 더 넣는다면 아시아 최다골 신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좌우 날개는 '원발 달인' 열기훈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청용(볼턴)이 펴고 기성용(셀틱)-김정우(광주 상무) 듀오가 변함없이 중앙 미드필더로 호흡을 맞춘다. 포백 수비라인은 왼쪽부터 이영표(알 힐랄)-이정수(가시마)-조용형(제주)-오범석(울산)이 차례로 늘어선다. 허정무 감독은 그리스전에 선발 출격했던 차두리(프라이부르크) 대신 발이 빠른 오범석을 오른쪽 포백으로 낙점했다.

골키퍼 장갑은 이운재(수원)를 제치고 그리스전 주전 수문장을 맡아 눈부신 선방을 펼쳤던 정성룡(성남)이 간다.

이에 맞서는 아르헨티나는 스트라이커 곤살로 이과인(레알 마드리드)을 최전방에 배

치하고 박지성과 같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를 배치해 맞붙을 놓는다.

메시가 아르헨티나 전력의 주축인 만큼 메시로 배급되는 볼을 차단하는 한편 이과인의 발을 묶는 게 한국 수비수들의 몫이다.

좌우 측면은 앙헬 디마리아(벤피카)와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가 맡는다. 다행히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해왔던 베테랑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에스투디안테스)이 장판지 근육 경련 여파로 2차전 출장이 불투명한 건 다행이다. 막시 로드리게스(리버풀)가 빠른 공백을 메우며 하비에르 마스체라노(리버풀)와 더불어 불타데 호흡을 맞춘다.

수비진은 왼쪽부터 가브리엘 에인세(마르세유)-마르틴 데미첼리스(바이에른 뮌헨)-알테르 사루엘(인터미란)-호나스 구티에레즈(뉴캐슬)가 포백을 형성한다. 골문은 세르히오 로메로(AZ알카마르)가 지킨다.

연합뉴스



“계산은 필요없다, 1승 더 챙겨라”

■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		
아르헨티나전	나이지리아전	전적(승점)
▶ 진출	승 무 무	3승(9점) 2승1무(7점) 2승1무(7점) 1승2무(5점)
▶ 가능	승 패	2승1패(6점) 2승1패(6점)
▶ 혼조	패 무	1승1무1패(4점) 1승1무1패(4점)
▶ 회복	패 패	1승2패(3점)

한국이 두 경기 만에 월드컵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의 쾌거를 거둘 수 있을까? 지난 12일 B조 1차전 그리스와 첫 경기에서 2-0으로 이긴 한국이 17일 '최대의 난적' 아르헨티나를 꺾고 16강에 오르는 그라운드 이변을 연출할 수도 있다.

물론 자력 진출은 아니다. 한국-아르헨티나 경기 후인 이날 오후 11시 블룸폰테인 프리스테이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그리스-나이지리아 경기에서 그리스가 이기거나 비길 때 16강행을 확정 짓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꺾으면 한국은 2승, 아르헨티나는 1승1패가 되고 그리스가 나이지리아를 제압하면 그리스는 1승1패, 나이지리아는 2패가 된다.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은 나이지리아와 맞붙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가 대결한다.

한국이 나이지리아에 저 2승1패가 되더라도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중 적어도 하나는 한국보다 나은 성적을 올릴 수 없다. 결국 한국은 최소 2위는 확보해 16강에 오른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를 꺾어도 나이지리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비기거나 패해도 16강 진출의 희망은 충분하다.

한국이 아르헨티나에 비기면 나이지리아 경기에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1승2무로 16강에 오를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 저도 나이지리아를 꺾으면 2승1패로 16강에 오른다.

아르헨티나에 지고 나이지리아에 비기면 1승1무1패가 되는데 이때는 나이지리아 또는 그리스와 승점이 같아서 골득실·다득점을 따져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나이지리아에 잇달아 저도 아르헨티나가 3전 전승, 한국과 나이지리아 및 그리스가 나란히 1승2패가 돼 세 팀이 골득실·다득점을 따져 16강 진출 팀을 가릴 수도 있다. 하지만 1승1무1패나 1승2패의 성적으로는 16강 진출을 장담하기 어렵다.

한국도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1승1무1패의 성적으로 조 3위로 밀려나 귀국 길에 올랐다.

최소 승점 5는 돼야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본선 참가국이 24개에서 32개로 늘어난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3개 대회에서 승점 5로 16강 진출에 실패한 경우는 하나도 없다. /서승원기자 swseo@

태극전사, 추위·고지대 악조건 넘어라

건강관리 등 컨디션 조절이 경기력 변수

‘쌀쌀한 날씨와 고지대 환경을 이겨내야 아르헨티나와 일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축구대표팀이 아르헨티나와 2010 남아공 월드컵 B조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결전의 땅인 요하네스버그는 해발 1753m의 고지대다. 해발고도 0m의 저지대인 포트엘리자베스에서 조별리그 1차전 상대인 그리스를 2-0으로 완파하며 기분 좋게 출발한 태극전사들이 맞닥뜨린 새로운 환경이다.

영하에 가까운 차가운 날씨와 공기 밀도가 낮고 산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고지대 환경이 선수들을 괴롭히는 악조건들이다.

◇ 추위와 전쟁-방한복에 전기장판까지=대표팀이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 건 현지시

각으로 오후 6시30분. 수은주가 푹 떨어지면 서 기온은 3℃를 찍었고 설상가상으로 차가운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다.

그러나 문제는 아르헨티나와 2차전이 열리는 17일에도 낮 경기임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기 당일 날씨는 맑은 편이지만 현지시각으로 오후 1시30분에도 기온은 7~8도 안팎으로 예보됐다.

선수들에게 긴팔 상의 유니폼과 장갑을 지급했기 때문에 보온을 한 채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감기를 호소한 선수는 없지만 갑자기 떨어진 기온 탓에 선수들의 건강관리가 경기력에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 고지대 환경 적응도 과제=요하네스버그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산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선수들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유다. 특히 저지대인 포트엘리자베스에서 경기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선수들은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체내에서 상당한 변화가 생긴다.

나이지리아와 1차전을 같은 요하네스버그의 엘리스파르크에서 치렀던 아르헨티나 선수들보다 태극전사들이 불리함을 안고 싸워야 하는 셈이다.

고지대에선 희박한 공기 때문에 공의 스피드는 빨라지고 비거리가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블라니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의 피버노바나 2006년 독일 월드컵에 사용했던 팀가이스트 못지않게 반발력이 커 고지대에서 공의 궤적 변화가 심하다.연합뉴스